

LG화학, 글로벌 인재 유치 “총력”

미국서 BC투어·테크페어 개최 ... 최고경영자 채용행사에 직접 참여

LG화학이 해외 우수인재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G화학은 최근 CEO 김반석 사장, HR부문장 육근열 부사장, 기술연구원장 유진녕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시카고와 샌디에이고에서 MBA 및 R&D관련 박사과정생 50여명을 대상으로 채용설명회인 BC투어와 테크페어를 열었다.

BC(Business & Campus)투어는 최고 경영진의 해외출장과 연계해 현지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기업 및 채용 설명회이며, 테크페어(Tech Fair)는 R&D 및 컨설팅기업에서 주로 실시하는 학술세미나 형식의 채용 설명회이다.

LG화학은 미국 시카고에서 실시된 BC투어에서 20여명의 MBA 출신 인재들을 대상으로 기업소개와 함께 CEO, HR부문장, 현지법인장 등 사업책임자와 직접 대화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된 테크페어에서는 하버드, MIT 등 명문대 박사과정생들을 대상으로 자사의 연구기술을 소개하고, 화학분야의 기술동향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했다.

LG화학은 행사를 통해 경영·사업전략, 마케팅 및 혁신 등 주요 핵심업무를 담당할 MBA 인재와 R&D 전문인력을 채용하거나 해외 우수인재 풀(Pool)로 등록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육근열 부사장은 “해외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고경영자들이 채용행사에 직접 참여해 기업의 선발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 BC투어 및 테크페어를 통해 현재까지 300여명의 해외 우수인재 풀(Pool)을 확보했으며, 50여명이 입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한편, LG화학은 2004년부터 글로벌 HR팀을 신설해 국내외 우수 인재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2006년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사업 거점지역에서 다양한 채용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저작권(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4/12>